

한국경제

## “치아교정중이었어?” 교정기 보이지 않는 ‘투명교정’ 인기 ↑

기사입력 2012-06-22 11:05



[김지일 기자]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니 채송희(가명, 25)씨. 약간의 덧니가 콤플렉스였던 송희 씨는 몇 달 전부터 치아교정을 하는 중이다. 물론 교정기를 치아에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치아교정을 시작한지 몇 달이 지나도 주변에서는 치아교정을 하고 있는 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주변사람들이 정말 치아교정중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인지 궁금했던 송희 씨. 결국 용기를 내서 동료 교사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치아교정중인데 티가 안

나나요?” 그 말을 들은 동료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채 선생님 지금 치아교정중이었어? 전혀 몰랐는데?”

동료들은 왜 송희 씨가 치아교정중인지 몰랐을까? 송희 씨는 이른 바 투명교정 장치를 사용하기 때 문이었다. 물론 송희 씨는 말을 할 때 입이 많이 벌려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교정장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했다.

최근 치아교정의 방법 중에 교정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교정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존의 치아교정 장치는 금속에 눈에 띄어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의 경우 기피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명교정은 교정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아교정중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다만 투명교정은 일반교정 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투명교정가격에 민감한 편이다.

투명교정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인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다. 금속을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과와는 달리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며 교정용 장치와 철사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척 간편하다. 투명교정의 치료 기간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 정도이며 2~8주 간격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투명교정은 말 그대로 투명하여 잘 보이지 않고 착탈식이라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명교정은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부정교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빼야 할 정도의 심한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와 이의 사이가 벌어진 경우나 심하지 않은 덧니치료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라고 조언한다.

투명필름 교정장치는 금속으로 된 와이어나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치열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투명교정은 투명필름교정장치를 환자의 교정상태에 따라 계속 바꾸어 착용하게 된다. 순차적으로 교정장치를 착용하면 비뚤어진 치아가 조금씩 움직여 나중에는 가지런한 치열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명교정은 모든 치아교정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투명교정을 원한다면 투명교정의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 **5호 태풍-탈림, 4호 태풍-구출 복상 “제주도 피해 얼마나?”**
-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 **디아블로3 환불 발표에도 게임 유저들 반응 '시큰둥'... 왜?**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709810>

---